

# 청소년 수련터전 실태조사와 소요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생활권 수련터전을 중심으로—

도	종	수**
이	광	호
구	정	화
박	정	화

1. 청소년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회관의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3. 청소년회관 시설에 대한 제안
4. 시·군·구민회관의 청소년 이용 활성화 방안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쉬고, 친구를 사귀고, 자질을 계발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이나 학교 및 가까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청소년시설의 실태를 청소년회관, 시·군·구민 회관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청소년이 적극 활용하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연구 및 자료에 대한 문헌연구, 70개 청소년시설 실무자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577명의 청소년회관 이용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 400명의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청소년 시설 근무자 및 전문가, 일선교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청소년회관 운영 및 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소년회관 시설에 대한 제안, 시·군·구민회관 이용활성화방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1. 청소년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서와 인격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서실, 클럽활동

\*이 연구논문은 본원의 1991년도 “청소년수련터전실태조사와 소요실태분석에 관한연구”를 요약한 것임.

\*\*공동연구자는 본원의 도종수(책임연구원), 이광호(주임연구원), 구정화(연구원), 박정화(연구원) 임.

실, 시청각실, 상담실, 자원봉사단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교양강좌, 예능교실, 취미교실, 스포츠교실,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청소년회관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현재 전국에 일반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1,360여만명이고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270여개인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 회관의 분포는 청소년 45만명당 1개소, 9개 시·군·구당 1개소인 셈이며 회관의 규모와 활동내역을 볼 때 회관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재지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청소년회관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시·도에는 단 1개소도 없다.
- ② 청소년회관의 설립에 있어, 30개의 회관 중 25개가 정부예산으로 설립되었고 나머지 5개는 대부분 단체나 지방유지의 성금, 또는 국가예산 보조를 받고 민간의 재원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회관 설립에 민간자본의 유치가 미약한 실정이다.
- ③ 청소년회관 운영형태는 일반청소년회관이 12개소 중 3개소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17개소 중 16개소를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어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 ④ 청소년회관의 예산에 있어 근로청소년회관은 전적으로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되며 대부분의 일반청소년회관은 정부의 예산

보조와 자체 수익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 ⑤ 직원규모에 있어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 관리직이 교육·지도자직보다 많으며 프로그램은 외부강사에게 위탁하고 있다. 일반청소년회관의 경우에는 관리직과 교육·지도자의 수가 거의 비슷하며,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회관 근무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⑥ 회관의 연간 개관일수는 대부분 300일 이상이라고 하나, 이용률이 높은 저녁이나 토·일요일에는 실무자나 지도자없이 1~2명이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아예 휴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⑦ 회관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근로청소년회관보다는 일반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지교육 위주로 되어 있어 좀더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 ⑧ 청소년회관의 홍보활동은 주로 홍보물제작, 신문게시판, 협조공문 등을 이용하여 단편적으로만 행하고 있어 전체 청소년회관에 대한 총괄적인 홍보활동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현황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청소년회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다.

#### 1) 지정·시범 청소년회관의 활용

현재 30개의 청소년회관들은 크게 유형별로 일반청소년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뚜렷한 차이없이 운영되고 있다.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 기본 단위사업을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청소년회관의 경우는 독서실, 상담실 등의 단위사업과 각종 강좌나 체육교습 프로그램 등으로 별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두 형태의 회관 간에 뚜렷이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혹 근로청소년회관은 회관 자체적으로 지방 간에 운영실무자들을 보내어 현장을 탐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거의 비슷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현재의 이러한 교류를 제도적으로 흡수하여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각 회관별로 독특한 내용에 의한 기능적 특성을 발전 육성하기 위하여 유형별, 운영 주체별로 시범 또는 지정 청소년회관의 운영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교육내용별 시범 또는 지정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회관의 유형별, 운영주체별로 '지정 청소년회관' 또는 '시범 청소년회관'의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꾀함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결과를 다른 청소년회관에 순차적으로 보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체육청소년부나 청소년연구원 등 적정기관 또는 단체 주도하에 유형별(일반청소년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주체별(행정기관 중심과 민간단체 중심)로 몇 개의 청소년회관으로 지원받아 검토, 지정한 후 지속적인 후원을 하면서 시범 운영을 하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선 지속적으로 재정적, 인적, 물적 지원과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며 시범 청소년회관은 활동 계획과 현황·결과·문제점 등을 공개하여 다른 청소년회관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범·지정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청소년회관 운영의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 여건 및 욕구 변화에 대처하며 독창성있게 할 수 있도록 시도하며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청소년회관의 운영에 큰 무리없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청소년회관이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점을 골고루 시험 적용하는 시범 청소년회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부분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별 방안은 앞으로 제시될 활성화 방안을 각 회관별로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보는 방식으로 취할 수도 있겠다.

## 2) 청소년회관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복지지원

청소년회관의 운영주체를 구별할 때 크게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청소년단체나 종교단체가 기존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에 관련된 실무를 익혀온 상태이어서 청소년 복지나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전문적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쌓은 사람보다 행정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전근되어 온 사람들이 많은 편이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다.

청소년회관의 직원은 크게 행정 서무관련 근무자와 실제 청소년지도 및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담당자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분야 모두 청소년에 관한 전문성이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겠으며 결국 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지도교육부문의 전문인 확보가 시급하다. 이 부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은 사회복

지사와 사회교육 전문요원 등이다. 사회복지사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의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회교육 전문요원은 대학에서 사회교육 및 관련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사회교육 전문요원은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면서 사회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과 실천, 지도 및 평가에 이르는 전체과정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교육의 전문지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남정걸, 1988 : 327),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앞의 일을 행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회관의 경우 구체적으로 볼 때 교육기능이 강한 면에서는 사회교육 시설이지만, 상담 등의 사회복지 활동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면에서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회관에서 사회교육 전문요원과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적정수에 관해서는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회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교육 요원들이 사회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참여하였다기 보다는 본인들의 전공과는 관계없이 일하는 경우 또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사회교육이 이루어졌으며(남정걸, 1988 : 335),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회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청소년회관 등에서 사회교육 전문요원이나 사회복지사를 확보하는 데는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보수(임금)의

문제이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나 사회교육 시설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다'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봉사측면을 강조하므로 현실적인 수준의 월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에 와서는 정부의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를 공무원으로 뽑아서 별정직 7급으로 직급을 정하여 월급이 책정되어지는 반면에 공무원이 아닌 사회시설의 전문가들의 월급이 공무원의 3/5 정도에도 못미치고 있어 사회단체나 시설보다는 공무원이 되는 길을 선택하려 하여 더욱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청소년회관을 운영·이용하는 시간이 평일저녁과 토요일, 일요일 등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근무를 해야하고 이에 따라 가족의 생활 리듬과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게다가 저녁 늦게까지 근무해야하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좋아서 내인생 다바친다'는 철학이 없을 경우 행하기 아주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청소년회관 직원의 고충은 바로 청소년회관 운영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있어 이에 대한 순차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문제는 청소년회관의 재정과 관련된 것으로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월급에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적인 월급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관련한 것은 운영의 묘를 조금만 꾀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교대 방식이나, 주중 하루를 쉬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 P 청소년회관의 경우 3교대 방식으로 9 :

00~14:00, 12:00~18:00, 14:00~22:00에 각각 근무하게 하여 오전에는 주로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된 행정처리를 하게 하고, 오후 및 저녁시간에 주로 관련 프로그램의 교육·지도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며, 주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몇 명씩 쉬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회관 자체의 공방은 전혀 없고,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1주 중에 하루는 쉴 수 있게 된다. 이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확보 및 파트타임 근무자와 저녁시간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청소년회관 자원 확보를 위한 모색

청소년회관의 운영을 확보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우선적이다. 재정문제는 직원의 월급인상을 통한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된다.

현재 청소년회관 운영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올릴 경우 이용대상이 청소년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 당연시되며 청소년회관 자체의 운영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회관 자체 수준에서 가능한 낮 시간대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과 외부적으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방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① 종합프로그램을 통한 재원확보

현재의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시설이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회관이 완벽하게 청소년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는 없으며

청소년들의 이용이 없는 낮 시간대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회관에서 이용률이 낮은 낮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대상의 유치원과 탁아소, 주부대상의 강좌 및 에어로빅을 비롯한 체육교실, 노인대상의 노인대학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시중보다 싼 편인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중과 대등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활동을 하고,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청소년의 문화, 놀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연 등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회관을 어떻게 연령층에 구애없이 개방하는데 따른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적정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회관을 유아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이용함으로써 청소년회관을 통해 친사회성이 크게 함양되고, 어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기회를 넓혀준다는 것이다. 셋째는 어른들, 즉 부모들이 청소년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회관의 역할과 이점을 알 수 있어 청소년들의 이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청소년회관을 이용함으로써 부모 자녀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므로 오늘날 가족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대립의 문제를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단점은 첫째,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

년회관의 이용자가 성인 위주가 되어 청소년회관 고유의 성격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둘째, 낮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더라도 최소한의 업무는 청소년회관 내의 직원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근무조건이나 월급에 대한 변화없이 실시한다면 직원들의 업무가 더 과중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운영자가 청소년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재원의 보조와 운영의 묘를 통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② ‘후원회’ 결성을 통한 재원확보

오늘날의 복지나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중요한 재원이 되는 두 가지는 정부보조와 개인의 후원금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후원금제도이다.

개인이 내는 후원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회유력 인사나 지방유지 등이 큰 돈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경우나 회원이 되거나 결연을 맺어서 1,000원 이상에서 10,000원 정도로 한 달 또는 1년을 단위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청소년관련 시설에서 후원회 결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예로는 대전근교에 있는 ‘S수련마을’을 들 수 있다. S수련마을에서는 100만인 후원회를 조직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1991년 11월 현재 약 8,000만원 가량의 재원을 지원 받았다. 또한 종교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후원자들의 회비로 지출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후원제는 재원 뿐만 아니라 자원지도

자를 충원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후원자들 중에서 ‘청소년회관 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운영이나 실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면 후원회가 청소년회관을 간섭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적절한 임무의 한계가 주워져야 한다.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반청소년회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공단 등에 위치한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회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후원회를 조직하여 청소년회관의 운영과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회관의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사실, 청소년회관의 운영과 이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나 청소년회관 이용실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운영과 연계시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회관 이용에 있어

- ① 청소년회관을 실제 이용해 본 경험은 학생청소년의 경우 본 연구대상자 중 19.3%에 그쳐 전체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낮다.
- ② 청소년회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47.9%가 친구, 18.3%가 씨클, 14.4%가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여 홍보활동에 의한 흡인력이 약한듯이 보인다.
- ③ 이용동기는 23.2%가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21.4%는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21.4%는 성격 변화를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다.

- ④ 청소년회관에서 필요하며 중요한 활동을 두가지씩 선택하게 한 결과를 보면 47.4%가 스포츠활동, 31.8%가 교양활동, 29.2%가 예능활동, 29.2%가 문예활동을 들고 있다.
- ⑤ 청소년회관 이용시 불편사항은 36.0%가 시간부족을 들고 있으며, 22.0%가 교통문제, 19.2%가 시설부족, 15.2%가 부모님의 이해부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회관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1) 특성있는 프로그램 확보 및 개발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은 공간의 규모와 지도자의 특성까지도 관련이 있다.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 매년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반청소년회관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시중의 체육시설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료만 조금 싸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더 독특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 할 것은 공간의 배치와 규모이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볼 때 공간과 프로그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우선적 순위는 내용인 프로그램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낮고 이용자가 적다면 이용자에게 대한 요구분석을 통해 개선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간의 적절한 개·보수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시설부분에서 다시 논의하

겠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로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에서도 위치한 지역에 따라 사회계층적 차이나, 지역문화의 차이 등에 따라 독특한 면이 조금씩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M 청소년회관의 경우는 현대 도시생활의 독특함과 예절 등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거나, 아파트의 작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S 청소년회관의 경우는 건전한 소비행위에 대한 강좌나, 여러 직업의 다양한 모습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에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교육·교양강좌 등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자 확보에 있어 원해서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차출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근로청소년들에게도 레저나 스포츠 등을 즐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지도자들이 앉아서 이용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등에 회사나 기숙사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교회에서는 주위의 공단 청소년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직장 축구대회 등을 하여 근로청소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근로청소년회관에서도 이런 활동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근로청소년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 또는 노동부의 협조도 있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현재 청소년회관의 홍보의 대부분이 각 회관

별로 플래카드, 안내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청소년회관의 목적과 역할,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회관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학생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왜 청소년회관을 이용해 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V-2-1>

청소년회관을 이용해보지 못한 이유

		정보부족	시간부족	먼거리	비용이 많을것 같아서	부모님의 이해부족	공부방해	좋지못한 아이들이 있을것 같다	기타	실수	$\chi^2$
성 별	남	79.5	6.0	2.6	0.9	1.7	0.0	1.7	7.7	117	13.141*
	여	68.6	9.3	7.9	2.9	3.6	2.1	2.9	2.9	140	
나 이	15세이하	61.7	8.5	8.5	0.0	4.3	2.1	6.4	8.5	47	28.714***
	16세이상	83.2	6.3	3.2	1.6	1.6	0.0	0.5	3.7	190	
소 속	중 학교	52.6	12.3	10.5	1.8	7.0	1.8	8.8	5.3	57	31.019**
	인 문 고	81.2	6.5	3.6	1.4	0.7	1.4	0.7	4.3	138	
전 체		73.5	7.8	5.4	1.9	2.7	1.2	2.3	5.1	257	

\*\*\* \* p<0.001 \*\* <0.01 \* p<0.05

위의 <표 V-2-1>을 보면 전체의 73.5%가 정보부족을 들고 있어 청소년회관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회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각 회관의 개별적인 정보제공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대중매체와 정보가 발달한 사회에서 호소력 있는 정보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의 목적, 역할, 프로그램, 장소 등에 대해 전체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중앙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TV나 라디오 등의 청소년 접촉도가 높은 대중매체에 전체 청소년회관을 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청소년회관에 대한 홍보활동은 청소년에 대한 이용률 증가와 함께 부모들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홍보방법은 대도시의 경우 '청소년회관 지도'(가칭)를 작성하여 위치, 버스나 지하철노선 및 주변학교, 공단 등을 함께 그려서 학교나, 공단 등에 배포하든지 지하철 등에 광고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 3) 무직·미진학 및 문제 청소년 지원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회관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낮시간대의 이용률은 아주 저조하다. 그래서 낮시간대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여 정학상태에 있는 학생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청소년 회관의 이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재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무직·미진학 청소년과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 사업으로서의 의의도 크다.

#### ①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지원

1989년 한국청소년연구원의 한 연구(김정명 외, 1989)에 따르면, 1989년 현재 우리나라의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수가 13,255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체 청소년인구의 0.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법으로서 취업능력과 기회의 제공과 함께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제공, 각종 상담, 결연, 사회보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각종 상담은 현재 청소년회관의 공간이나 직원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먼저, 상담사업을 통해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아곤란과 현실불안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며, 적성·인성검사 등을 통해서 진로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주고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 훈련 등을 통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청소년회관에서의 지원 방법은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및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도심에 위치해 있는 Y 청소년회관의 경우 낮시간에 주변의 학원에서 공부하다 독서실 등을 활용하는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독서실 제공 등의 보조적 기능에서 확장하여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 직업훈련, 산업시찰 프로그램, 대인관계 훈련, 전문기술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잘 활용된다면, 퇴폐향락적인 성인중심의 오락문화에서 벗어나 청소년 일탈행위 등이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② 문제 청소년의 지원

오늘날의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과열 경쟁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적응하지 못하여 좌절하고 도피적이며 파괴적인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학교내외에서 발각이 되는 경우 그들은 '경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불명예스런 낙인을 받게된다. 이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총속에서 처벌을 받게되고, 낙인과 함께 문제학생 나름대로의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하면서 대부분 퇴학이나 가출이라는 방법으로 학교와 가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학교의 상담실이나 학생부는 이들을 지도하거나 울타리 역할을 하기 보다는 처벌을 행하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행동 학생들을 제대로된 교육적 지도보다는 처벌위주의 강경책이나 설교위주의 교육정도를 넘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

한 문제행동 학생들을 차라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회관의 상담실 프로그램이나 여가시설 등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도 할 만한 일거리가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관심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그 지역사회의 성실한 어른들과 후원관계를 맺어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을 꾸준히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행동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을 이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어른이나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은 불량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4) 주변학교와 연계

청소년회관이 대부분 옥내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옥외활동이 곤란할 경우가 종종있다. 또한 이용자의 확보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회관과 주변학교들의 연계활동을 제안해보려 한다.

'자매결연'을 맺듯이 청소년회관과 주변의 학교들이 결연을 맺어 옥외시설이 부족한 청소년회관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교의 운동장·교실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를 할 때나, 특활활동, 보이스카웃이나 청소년연맹 등 단체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도자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회관과 여러 주변학교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주변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를 공통대상으로 하는 지역청소년 축제 등도 할 수 있어 종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위의 청소년들이 평소에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고, 학교

로부터 정당성도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 활동은 교육부, 각 지방교육청과 체육청소년부 사이에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3. 청소년회관 시설에 대한 제안

청소년회관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많은 청소년회관이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함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작아서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힘들다.
- ② 버스, 지하철 정류장과 거리가 멀어 저녁에 이용하기가 무섭다.
- ③ 건물양식이 2~3층의 박스형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서 딱딱한 느낌을 주어 접근하기 쉽지 않다.
- ④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 강의실, 생활관, 취미교실과 일반청소년회관의 경우 독서실, 소강당, 체육관 등의 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시설규모가 작아서 불편하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청소년회관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 1) 청소년회관의 적정수 확보

현재 전국에 있는 30여개의 청소년회관은 1,360여 만명에 이르는 전체 청소년을 수용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시설의 확보와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청소년회관을 짓는데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청소년회관의 현재 분포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건설을 계획할 때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부지가 있거나 땅값이 싸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선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회관이 없는 곳, 교통의 편리성이나 주변학교의 수, 주위환경, 이용가능한 청소년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지를 찾아야 한다.

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근로청소년회관 정도는 있지만 일반청소년들을 위해 '센터' 역할을 할만한 시설이 없다. 만약 확충계획이 있다면 일반청소년을 위한 회관도 지역마다 하나 정도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만큼 청소년회관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에 청소년회관이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의 지부와 같은 작은 여러 공간을 많이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도 도시의 경우 각 동마다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새마을금고의 회의실이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이를 청소년을 위한 장소로 지원하고 청소년회관에서는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지방이나 농촌의 경우는 4H회관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무리하게 청소년회관을 적정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을 적정수 확보하고 기존의 소규모 공간 또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2) 청소년회관 공간의 다목적화

청소년회관은 다른 시설물과 달리 문화·체육·교육시설을 집합시킨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능을 실제로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규모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거대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간을 고정적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개의 교실을 대강당이나 디스코텍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음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공간을 넓이거나 축소하여 그 목적과 인원수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간 하나를 여러 규모로 이용하는 계획이 어렵다면 기능이 동일한 공간들을 묶어 연관성을 갖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관성이 큰 것들로 묶어 보면 예를 들어, 로비와 전시장, 음악감상실과 유희장과 오락실,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등의 성격이 유사한 공간을 묶어 융통성 있게 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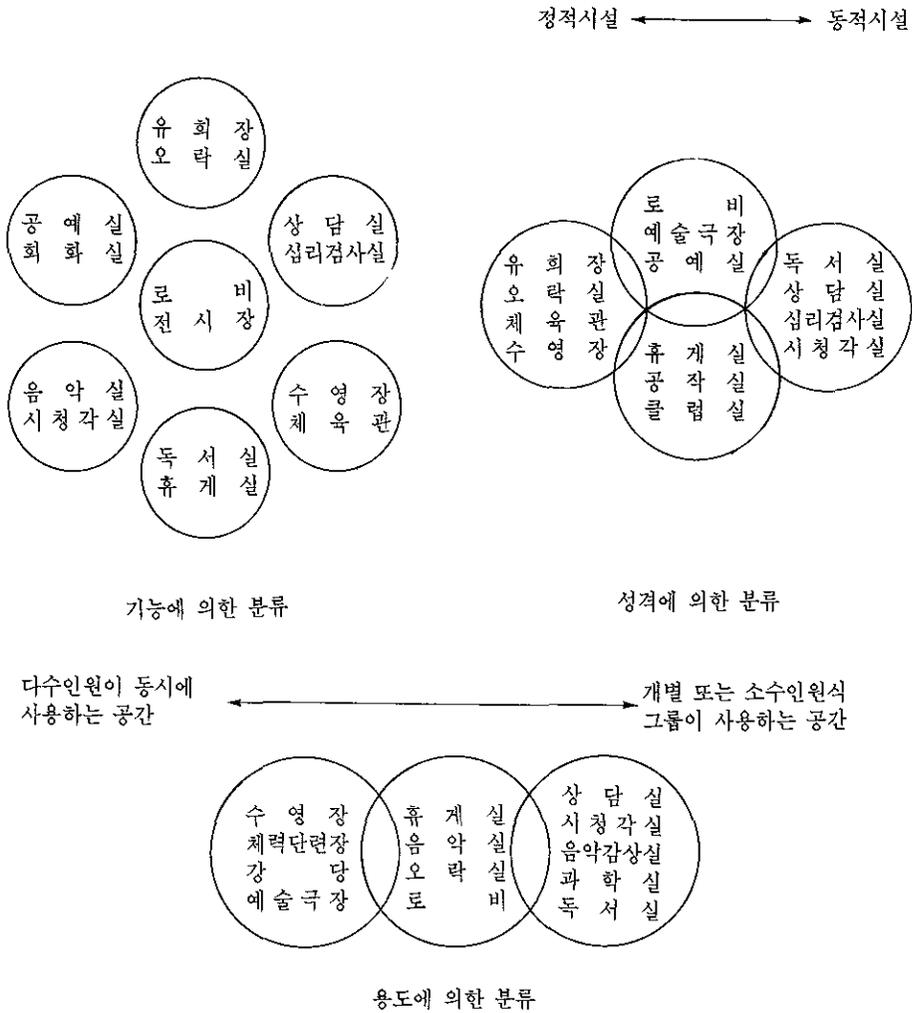
이렇게 공간을 기능·성격·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이은주, 1987: 104) 아래 <그림 V-3-1>과 같다.

### 3) 청소년회관 계획을 위한 고려사항

청소년회관이 공동체시설로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규모와 공간의 속성, 분위기 등의 여러 사회·물리·심리적 환경기능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이은주, 1987: 103-104; 권경자, 1988: 40-41).

- ① 공간끼리는 공용 로비나 복도 등을 연결하여 형태의 흐름이 끊이지 않게 하며, 적절하게 동선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표 V-3-1〉 청소년회관 공간의 특성에 의한 분류



- ② 건축물 사이에 생기는 외부공간은 야외 산책로, 야외 휴식공간 등의 시설을 배치하여 내부와 유기적 관계를 이루도록 하여, 옥내시설 중심인 청소년회관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게 한다.
- ③ 휴식공간과 간식공간 등을 연계시켜 충분한 공간을 줌으로써 청소년들 휴식, 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④ 각 시설별로 이용자수, 교대율(각 활동의 이용가능한 시간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가능률을 산정), 참여도, 시설의 수, 필요규모 등을 기본으로 한 면적산정법에 따라 적정 규모를 확보하도록 한다.
- ⑤ 색채와 재료의 선택에 있어 자연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조명도 주조명과 부분조명을 사용하여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

며 용도에 따라 분위기를 달리해야 한다.

- ⑥ 가구는 이동가구를 사용하여 변형을 가능하게 하며 실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접근하기 가장 가까운 곳에 안내소나 안내지도 등을 마련하여 이용에 편리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⑧ 교통노선의 확보와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한 기초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 4. 시·군·구민회관의 청소년 이용 활성화 방안

시·군·구민회관은 그 설립목적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사회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건립된 공간이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시·군·구민회관의 시설현황과 운영실태에 기초하여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재 시·군·구민회관의 주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시·군·구민회관의 시설과 운영의 문제점은 회관 종사자나 관계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지며, 주민이용의 활성화 방안은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전체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특히 지역 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시·군·구민회관은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이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이나 집단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나 운영의 개선보다는 지역사회의 사회교육 및 문화·여가의 장으로서의 기능 추구가 보다 바람

직할 것이다. 단지 시·군·구민회관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주요한 일원인 청소년의 이용 활성화는 전체주민을 위한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과 갈등 대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 먼저 현재 시·군·구민회관에 있는 시설들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도시에 위치한 시민회관이나 구민회관, 중소도시의 시민회관 및 농어촌지역의 군민회관은 그 지역의 특성, 지역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도서실 등과 같이 획일적으로 내부시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의 획일화는 곧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용자의 대상, 이용 프로그램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제약하는 주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획일화된 시설이나 지역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조명, 냉·난방, 음향 등의 내부 시설이 아직 갖추어 있지 않은 시설도 적지 않았다. 즉, 각종 문화 예술행사나 공연을 하기에 부적절한 곳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둘째, 현재 대도시 지역의 시민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민회관은 그 본래의 기능과 크게 관련없는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음으로 인해 주민이용의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80년대 이후 지방행정 기구의 점차적인 확대와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의회 시설과 사무실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군·구민회관의 시설이 많이 잠식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군·구민회관이 독립된 시설로 건립되어있기 보다는 문화원, 예비군 관련 사무실 등과 병존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회관의 시설은 겨우 각종 행사를 위한 강당 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또한 지역사회에 많은 각종 사회단체들 중 특히 정부 주변에 산재해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행정적·재정적 여건상 사무실을 얻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회관에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다. 앞의 회관실태 분석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각종 기관이나 단체 사무실이 임시방편적으로 회관에 입주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의 지방행정의 시설이나 재정적 여건상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시·군·구민회관에 대한 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입주 및 사무실 임대 상황은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시 말해 시·군·구민회관이 이렇게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시·군·구민회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적 배려나 고려의 수준과 지역 주민들의 회관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참여 의식의 정도가 빚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의 시급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회관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의 제고와 관련 행정기관의 지역회관에 대한 의식 전환 및 행정·재정적 배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셋째, 시·군·구민회관의 운영·관리요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대도시에 위치한 시민회관의 경우에는 관장이하 회관을 관리·운영하는 기구와 요원이 있는데 반해 대도시의 구민회관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시·군민회관에는 별도의 독립된 관리기구 없이 군·구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으며 단지 파견근무형식의 행정직원과 용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의 실태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민회관의 경우에는 행정직원도 상주하지 않은채 소수의 용원들만이 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특히 전기·통신·기계 계통의 기술자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회관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몇몇 군민회관은 행사 후 청소할 인원이 부족하여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곳도 있었다. 이와 같이 회관의 관리·운영인원이 부족하고 독립 운영 기구가 없음으로 인해 시·군·구민회관의 사업이나 활용가능 범위는 매우 제한되게 된다.

넷째, 회관의 관리·운영인원 부족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현재 시·군·구민회관에 상주하거나 관계하고 있는 직원들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의 일부 시·군·구민회관에는 조명, 전기, 무대장치 등의 기술적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도 없지 않으나, 많은 경우는 그러한 전문기술 요원이 상주해 있지 않다. 특히 행정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시·군·구청의 일반직 행정공무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이나 주민들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등에 투여할 인력, 시간, 의견수렴 통로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관의 운영은 단순히 지역사회의 단체나 기관 및 학교, 정당 등의 행사장이나 문화·예술 행사 위주의 대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시·군·구민회관이 자체에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장소를 임대해주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시·군·구민회관이 자체에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업

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장소를 임대해주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시·군·구민회관이 어떻게 장소 대관위주의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 까닭은 앞에서 지적한 전문인력, 부재, 인원부족, 시설의 열악성 등과 아울러 절대적인 재정의 궁핍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인력의 부족문제와 아울러 현재 시·군·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일부 실무자들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별정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분류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회관 근무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관을 이용하는 행사나 사업이 일반 공무원의 퇴근시간 이후인 밤시간이나 토·일요일등의 공휴일에 많이 개최됨으로 인하여, 회관 근무자는 장시간의 근무시간에 시달리거나 휴일을 갖기 어려운 것 등의 상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 있다. 그런데 회관 근무자들이 그 사업의 성격상 시간의 근무시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장시간이며 빈번한 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대나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횟수나 조건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것들도 시·군·구민회관 종사자의 근무의욕의 상실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 개선하고, 시·군·구민회관이 그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회복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특히 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군·구민회관의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관리·운영기구와 인원을 증원하는 일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대도시의 시민회관을 제외한 시·군·구민회관에는 독자적인 관리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일반행정 업무와 동시에 관할하고 있음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개설·운영은 고사하고 현재 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각종 행사나 대관업무 만을 수행하는 데에도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청소년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개발이나 실행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시·군·구민회관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독립 단위기구와 전문인력의 확보에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연차적으로 특정 사업별 시범 회관을 선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기구와 인력을 확대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들과 관할 행정기관장의 시·군·구민회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제고는 회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회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 및 감시활동은 회관을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 예술의 장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회관과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이해와 관심이 어우러질 때 만이 그 기능의 정립과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시·군·구민회관의 부족한 시설 중에서도 해당 지방의회나 기타 사회단체나 기관의 행정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현 여건의 개선은 이러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해와 감시가 수반되어야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다양한 사업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회관에 대한 다양한 요구나 필요를 수렴·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요구사정 등의 방법을 통한 의견수렴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일부 회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회관운영 협의회' 등을 지역주민의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여 실질적으로 관리·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는 물론 어떠한 사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업 범위의 확대와 질의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관할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봉사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물론 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은 행정기관에서의 직접 운영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다. 이를테면 위탁운영한다고 해서 회관이 지역주민들의 대화, 여가의 장으로 적극 활성화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회관의 위탁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우선 회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에, 이들에 대한 지위와 대우 문제가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별정직 등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회관의 운영시간이 타 기관보다 장시간이며 공휴일에도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근무조건으

로 미루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관리하는 데에는 근무의 초과수당의 지급이나 다른 업무 종사자와의 상대적 불이익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순환근무 및 잦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전문성의 누적과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현재 시·군·구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공무원이나 기능직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위탁운영이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회관의 위탁운영은 대도시의 구민회관에서 청소와 기자재의 관리만을 위탁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관의 모든 운영에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정 단체에 위임하고 관할 행정기관은 감독과 행정·재정적 지원 업무만을 해야 한다. 단지 위탁운영시 회관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이해집단의 이해과 관심, 감시는 필연적이며, 아울러 1회관 1기관 위탁 형태가 아니라 1기관에 2~3개소의 회관을 위탁함으로써 지역간의 교류, 관련 회관 종사자의 순환근무, 특정 지역 회관의 예산부족이나 이용료 수입의 차등에 따른 지역간의 적자 폭의 감소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정치·사회단체나 학교 행사의 대관이 주종을 이루는 회관의 이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회관 자체에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회관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각종 사업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이용료 수입의 확대는 물론 상대적으로 행사위주의 대관이나 이용을 줄여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회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는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각종 친목, 스포츠 동우회 등을 유치하여 집회실을 대여해 주거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양, 문화, 어학 강좌 등을 개설하는 등의 수익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주부나 어린이 대상의 취미·오락 교실 등의 사업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독서실은 공부방의 기능에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각종 관할·행정기관의 자료와 도서를 비치하여 자료를 통한 자기 고장의 이해와 관심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가지 첨가하고 싶은 사업은 주부들의 사회 참여나 회관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일정한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탁아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 공민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시정참여와 각종 사회단체나 행사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편의를 위해 탁아시설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인력확보 이외에도 기존 시설의 구조 변경이나 증축 및 개·보수가 요구된다. 현재 대강당, 소강당, 회의실, 전시실 등으로 비교적 대규모로 획일화되어 있는 회관 시설을 소규모의 단위 시설로 구조 변경하여 집회실, 탁아실, 자료실, 각종 취미교실 등과 같은 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시설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각종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강당은 당분간 유지·존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사회나 학교 내에 비교적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에 비추어 회관의 강당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도시 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군민회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지역규모가 크고 교통이 불편하며 현재 회관의 이용을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 특성에 알맞는 다양한 사업의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군민회관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순회 셔틀버스의 운행도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현재 시·군·구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루에 비교적 장시간동안 동료들과 동떨어져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또 일정한 신분 보장없이 잡급이나 기능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들의 신분안정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좋은 시설과 사업이 마련되더라도 회관 근무자들의 관심과 이해 및 열의가 없다면 실질적인 회관의 역할 정립과 회복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선 인원의 확충은 물론 실무자들의 직급을 기능직이 아닌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별정직으로 전환하거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가능 일수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소 완화시켜 연장해주는 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논문과 도서

- 고명규(1977), “청년문화에 관한 고찰”, 「제주대 논문」, 제 9집.
- 권경자(1988), “청소년 문화회관의 실내 휴식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이중(1989), 청소년 문화와 정책, 서울:배영사.
- 김광빈(1988), “서울시 소재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모·이용교(1986), “근로자 종합 복합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 한국청소년연맹 부설 한국 청소년연구소.
- 남정걸(1988), 사회교육행정론, 서울:교육과학사.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1985), 사회복지사전, 대구:경진사.
- 박종삼(1991),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복지선교”, 유의웅(편),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 유의웅(편)(1991),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 이재창(1985), “청소년문화의 의미와유형”, 서울 청소년지도육성회.
- 이은주(1987), “청소년회관의 공간계획방법”,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체육청소년부(1991), 한국청소년 기본 계획, 서울:체육청소년부
-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198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소년교육, 서울: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연구원 a(1990), 청소년 전용시설 조사연구,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연구원 b(1990),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연구원 c(1990), 요보호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